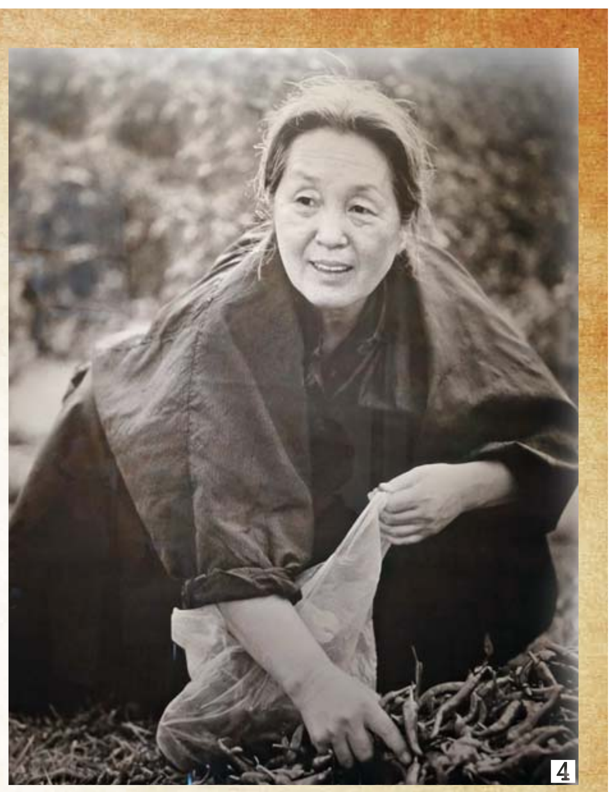
고독과 마주하며 얻은 창조… '토지'에 마침표를 찍은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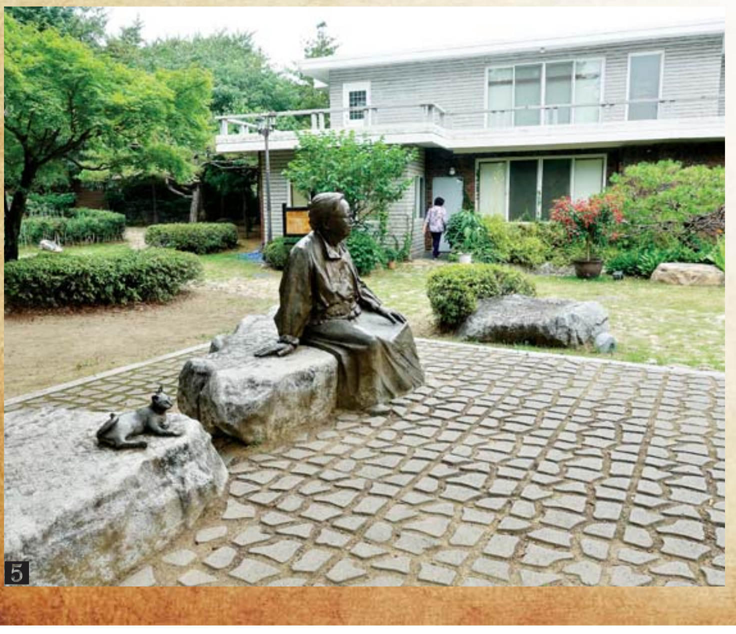
문학이 있는 풍경
문학 도시를 가다

(4) 박경리 작가와 원주

1980년 '본질적인 땅'에 터전
1994년 8월 원주 단구동 자택서
26년 걸친 소설 '토지' 완간
8월 15일은 '소설 토지의 날'

작가를 기리는 공간과 축제
문학 창의도시의 중요 자산





1 박경리 문학의 집. 박경리 문학과 삶을 살필 수 있다.
2 대하소설 '토지'가 탑처럼 쌓여있다.
3 박경리 문학의 집 전시실에 놓인 육필원고.
4 박경리 문학의 집에 걸린 박경리 작가의 모습.
5 '토지길'로 도로명이 붙은 원주시 단구동 '박경리선생님 옛집'. 입구에는 박경리 작가가 텃밭에서 일하고 난 후 잠시 쉬고 있는 모습을 담은 조형물이 설치됐다.
6 옛집 집필실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전신에 엄습해오는 통증과 급격한 시력의 감퇴와 밤낮으로 물고늘어지는 치통과, 내 작업은 붕괴되어가는 체력과의 맹렬한 투쟁이었다. 정녕 이 육신적 고통에서 도망칠 수는 없을까? 대매출의 상품처럼 이름 석 자를 걸어놓은 창작 행위, 이로 인하여 무자비하게 나를 묶어버린 그 숱한 정신적 속박의 사슬을 물어 끊을 수는 없을까? 자의(自意)로는, 그렇다, 도망칠 수는 없다. 사슬을 물어 끊을 수도 없다. 용기가 없는 때문인지 모른다. 운명에의 저항인지도 모른다. 마지막 시각까지 내 스스로는 포기하지 않으리. 그것이 죽음보다 더한 가시덤불의 길일지라도."

소설가 박경리(1926~2008)가 1973년 6월 3일 밤, '토지' 1부를 끝내며 써놓은 '자서' 중 일부다. '빙벽에 걸린 자일처럼 내 삶은 이토록 팽팽해야만 하는가'라고 물으면서도 가슴에 붕대를 감은 채 목숨이 있는 이상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던 그였다.

200자 원고지 4만여 장 분량의 '토지'는 단순한 대하소설이 아니다. '배경으로서 역사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는 듯하지만, 그것에 짓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틈과 구멍을 내고 실핏줄을 내는 문학. 그러면서 모든 생명체의 실존에 거룩함을 주는 문학'(김진석)이다.

박경리 작가를 기념하는 공간은 출생지인 경남 통영에 있고 소설의 배경이 된 경남 하동군에도 있다. 통영에는 소설 '김약국의 딸들'을 중심으로 한 박경리기념관, 추모공원, 작가의 묘소가 들어섰다. 하동군엔 박경리문학관, 소설 속 최참판댁을 복원한 공간이 조성됐다.

박경리와 '토지'의 인연을 소중하게 안은 또 하나의 도시가 있다. 강원도 원주(原州)다. 작가는 한자어 그대로 '원래의 대지', '본질적인 땅'으로 해석되는 원주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원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산천을 사랑한다는 얘기"라며 "사람들은 얼마나 그 대지의 모성으로부터 떠나 있는가"라고 했었다.

작가가 '무궁무진한 인생의 심층을 상식으로 가려버리려는' 말들을 뒤로 하고 서울을 벗어나 원주로 이사한 해는 1980년이다. 세상의 끝 같았던 그곳에서 배추, 고추, 상추 등을 심어 가꾸고 고양이를 돌보며 '토지' 제4부와 5부를 집필했고 1994년 8월 15일 새벽 2시 소설에 마침표를 찍는다. 소설의 배경이 1897년부터 반세기 가까이 되고 집필 시기만 1969년부터 1994년까지 26년에 이르는 기나긴 여정이 마침내 끝을 맺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원주에서는 매년 8월 15일을 '소설 토지의 날'로 기리고 있다. 이날이 다가오면 지역 문인들과 손잡고 전국 박경리 시낭송 대회, 소설 낭독공연 대회 등을 펼친다.

집필실이 있던 원주시 단구동 자택 일대는 지금 '한국문학의 산실'이란 수식어가 달린 박경리문학공원으로 바뀌었다. 작가가 18년간 살았던 집이 토지공사의 택지개발구역으로 편입되자 전국의 문인과 독자들이 반대했고 이에 토지공사는 이곳을 공원으로 조성해 원주시에 기부했다. 당시 토지공사는 박경리 토지문학상 제정도 제안했으나 작가는 그 대신에 후배작가들을 위한 창작 지원 공간과 문화예술 현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자는 뜻을 밝혔다. 1996년 토지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작가가 마련한 터에 토지공사가 건축비를 지원해 3000여 평의 대지에 세워진 곳이 원주시 흥업면 매지회촌길에 있는 토지문화관이다.

1999년 완공된 문학공원의 야외는 소설에서 따온 홍이동산, 평사리마당, 용두레벌 등 하동 평사리에서 간도 용정까지 머나먼 거리를 무대로 꾸몄다. '박경리선생님 옛집'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2010년 문을 연 공원 안 박경리 문학의 집에선 작가의 삶과 작품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토지' 육필 원고, 곁에 두고 글쓰는 데 참고했던 국어사전, 손수 옷을 지을 때 썼던 재봉틀, 농사지을 때 사용하던 호미와 장갑 등이 보인다.

지난 6월 말 찾은 '박경리선생님' 옛집 텃밭엔 작가가 살아있는 듯 푸성귀들이 푸르렀다. 작가는 가고 없지만 그를 오래토록 기억하려는 이들의 마음이 읽혔다. 임의숙 책임해설사의 안내로 들여다본 집필실에 발을 디디니 '문학, 그것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원주에 있는 대학에서 강의했던 작가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 했다. "고독하지 않고서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고독은 즉 사고니까요. 사고는 창조의 틀이며 본(本)입니다. 작가는 은둔하는 것이 아니며 작업하는 것입니다. 예술가는 도피하는 것이 아닌 작품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박경리문학공원이 작가의 숨결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독자들의 공간이라면 1999년 6월 문을 연 토지문화관은 국내외 문인과 예술인을 위한 창작실을 두고 있다. 개관되던 해 '생명·문화·환경' 주제 세미나와 국제심포지엄을 열었고 2001년부터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인들에게 창작 공간을 무료로 지원해왔다. 2004년부터는 예술인 대상, 2007년부터는 재외 교포와 해외 문인, 예술인들에게도 문호를 넓혔다.

원주시가 2019년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할 때 '박경리와 문학'은 중요한 자산이었다. 가입 신청 당시 토지문화관에서 운영하는 작가 레지던시를 통해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예술가들이 혜택을 봤고 지역 문인을 위한 강좌와 심포지엄이 지속적으로 개최된다는 점을 알렸다. 원주시에서 매년 박경리문학축제를 열어 소설 읽기 대회, 시 낭송, 드라마 콘서트, 청소년 백일장 대회 등에 연간 13만명 이상이 참여한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작가의 생애 중 가장 오랜 나날을 보낸 원주는 지금 '박경리'를 중심으로 문학 도시의 미래를 모색하는 중이었다.

글·사진=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축
CONGRATULATIONS
임 용
Western Illinois University Instructor of Flute
웨스턴 일리노이 대학 플루트 지도교수

고 수 연
(제주여고 졸업·제주대학교 졸업)
(University of North Texas 석사, Indiana University 박사)
(父 : 고용보(세원종합건설(주) 대표) · 母 : 김옥희)
웨스턴 일리노이 대학 플루트 지도교수
(Western Illinois University Instructor of Flute)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외 가 일 동
(외삼촌 김방노, 이모 김정의, 옥순, 문경, 홍자, 시연)

축
CONGRATULATIONS
취 득
교육학박사
(컴퓨터교육전공)
오 정 철
(도평초 교사)
부 : 故 오방익 · 모 : 김영화 · 배우자 : 진영지
제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처가 가족일동

축
CONGRATULATIONS
취 득
제주대학교대학원 행정학박사

김 일 순
제주대학교대학원 행정학박사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시 시니어 배드민턴클럽
회 원 일 동

축
CONGRATULATIONS
승 진
서 기 관

한 제 택
서기관(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어음2리 리민일동